

무주군 친환경농업 이끈다

미생물 배양·공급 등 GCM 농법 확산 주력

무주군은 무주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바이러스와 역병, 선충 예방 등 병해충 방제에 탁월한 친환경미생물 GCM을 배양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친환경유용사업단(무주농협장 곽동열)을 통해 매주 목·금요일에 공급되는 GCM의 가격은 100리터당 7,000원으로, 무주군은 사업비 2,500만원을 지원해 당초 100리터당 1만4,000원이던 단가를 반으로 줄였다.

무주군에 따르면 GCM은 선충과 곰팡이, 그리고 해충의 알 껍질과 포자 등에 있는 젤라틴(Gelatin)과 키틴(Chitin)을 분해하는 미생물(Microorganism)로 특히 '온실가루이'와 '총채벌레', '응애' 등 병해충방제 효과가 탁월하다. 또 시설재배 농가의 연작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특히 '뿌리혹선충' 방제효과가 우수해 벼와 고추, 사과,



무주군은 무주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바이러스와 역병, 선충 예방 등 병해충 방제에 탁월한 친환경미생물 GCM을 배양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토마토, 인삼 등 다양한 작물에 사용되고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이장원 연구개발 담당은 "기존 방법대로 농사를 지을 때와 비교해봤을 때 수량증수와 착과증진 등에서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며 "농약과 비료 등 농자재비를 줄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농법인

만큼 농가들에게 많이 알려져 사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농가들이 농업미생물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소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미생물 활용 교육과 친환경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동

16일까지 온라인 참여 접수 농촌지역 새로운 활력 기대

장수군은 전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은 민간취업연계형으로 지역공동체(마을, 단체 등)에 젊은 활기를 불어 넣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청년현장활동가를 육성해 향후 공동체 센터 및 마을 기업 등 기관으로 취업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업장은 장수지역활력센터, 장수군 농민영농조합 2개 센터이며, 만19세~39세 청년 3명을 선발한다. 참여자

모집기간은 7일부터 13일까지이며, 선발된 청년들은 6개월 간 센터 커뮤니티 활동 및 홍보, 행사 지원 등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며 활동하게 된다.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사업장(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청년에 대한 구인 수요에 대응하고 취업과 연계지원으로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http://청년혁신가.kr>)을 통해 16일까지 참여접수 가능하며, 전라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의 면접을 통해 8월 중 선발 예정이다.

김기완 건설경제과장은 "청년일자리 사업이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청년의 진로와 적성에 맞아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 아리



장수, 헌혈로 이웃사랑 실천

장수군(군수 장영수)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10일 군청 앞 주차장에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주민이 수혈용 혈액확보를 위해 헌혈을 실시할 계획이다.

헌혈자는 금주, 과로는 피하고, 4시간 이상 숙면과 당일 식사는 필수이며 전염성질환 및 간염 보균자 또는 병원 치료에 있거나 치료용 약물 복용자는 헌혈에 참여 불가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복용자도 헌혈 가능하며 헌혈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혈액수급 차질 등으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이웃들을 돕고자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및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헌혈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350-3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수군은 매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한 사랑의 헌혈운동을 통해 도내 수요처(병·의원)에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민 생명보호와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오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안성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문화체육장 공선화·향토공익장 박천수씨 영예

무주군 안성면(면장 주홍규)은 공선화씨(62세, 시장 윗길·사진 왼쪽)와 박천수씨(61세, 안성로·사진)가 안성면민의 장 문화체육장과 향토공익장에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장에 선정된 공선화 씨는 안성면 배드민턴회장, 무주군체육회 이사, 안성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며 안성면은 물론, 무주군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며 안성면의 위상을 드높인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선화씨는 "좋아하는 운동을 한 것이 고향과 이웃들을 위한 발걸음으로 이어져 더없이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토공익장을 받게 된 박천수 씨는 무주군 모범운전협회 회원으로로서 안성천마추계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교통봉사 활동을 펼쳐왔으며 등하곶길 안전과 거리질서 확립, 10여 년간 독거노인 효도관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박천수씨는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주변에 조금 더 마음을 썼던 게 면민의 장의 영예를 안겨준 것 같다"라며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살겠다"라고 전했다. 안성면민의 장 시상식은 오는 15일 제45회 안성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음식접 위생 점검 돌입

진안군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 간에 걸쳐 지역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해 관내 음식점 230개소를 대상으로 식용유 유통기한 및 산가측정 안전지도 전수 점검에 나섰다.

산가는 유지나 지방 1그램 속에 들어 있는 유리된 지방산을 중화하는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양을 나타낸다.

모든 업소가 조리식품 튀김기름의 산가가 높으면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 발생가능성이 높아져 생활 속에서 주민들의 건강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튀김용 식용유지의 산가를 3.0이하로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한 산가 측정을 위해 식용유지 산가측정 페이퍼(리트머스 시험지) 측정을 병행하고 조리기구 등 위생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기온이 높아져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갈, 도마, 행주 등 조리기구에 대한 오염도 현장 간이검사(ATP 측정)를 실시해 조리종사자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신선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인 관련 부서장과 담당들이 함께 긴급회의를 열어 급증하는 진드기 매

/진안=우태민 기자

치료제 없는 진드기 매개감염병 '주의보'

무주, 전 세대에 기피제 보급 예방수칙 담긴 홍보물품도

무주군이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6개 읍면 전 세대(12,131세대)에 기피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도내 진드기 매개감염병(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보건의로원은 예비비 4천만 원을 확보해 기피제와 예방수칙이 삽입된 홍보물품(부채)을 구입했으며 8월 말까지 '1세대별 1기피제 1홍보물품' 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무주군보건의로원 김여령 감염병 관리담당은 "지난 7월 부군수 주재로 보건, 농업, 안전재단, 환경산림, 각 읍면 관련 부서장과 담당들이 함께 긴급회의를 열어 급증하는 진드기 매

개감염병에 대한 대응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라며 "전 세대에 진드기 기피제가 보급이 되는 만큼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야외 활동 후 고열, 구토, 설사, 전신 근육통 등의 의심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많은 환자가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살인진드기)은 야생진드기의 일종인 작은소창진드기가 매개해 발생하는 것으로, 6~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C 이상의 고열, 소화기 증상,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다.

현재까지 예방백신이나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공약이행평가단 모집완료

진안군은 이항로 군수의 공약이행과 군정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군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 35명을 모집완료했다.

군은 공개모집 20명, 인구비례를 고려한 지역추천 15명, 총인원 35명의 배심원단 구성을 완료하고 다가오는 14일에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선발된 배심원단은 부자진안, 희망진안, 행복진안, 관광진안, 소통진안이라는 5개 분야를 구성한 뒤 10여개의 공약 조항에 대한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배심원단의 운영은 국회 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진행방식을 취한다. 본과회의는 국회 상임위처럼 본과에 배정된 중점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한 권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게 되며 전체회의에서는 재청과 삼청으로 분과별 권고안을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